

몽골 이전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관계

Peter Yun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1. 머리말

서구학계 조공체제의 이론적 틀을 성립한 미국의 존 페어뱅크(John K. Fairbank)는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우선 중국의 북방 초원에 거주한 유목민족을 ‘내륙 아시아 지역’(Inner Asian Zone)으로, 중국왕조와 산발적인 교류만 가지면서 진정한 조공체제는 이루지 못하였던 동남아시아, (특정 시대의) 일본 그리고 서방 국가들은 ‘외부 지역’(Outer Zone)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문화·제도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한화’(漢化)가 이루어졌다는 한국과 베트남 등을 ‘한족문화지역’(Sinic Zone)으로 분류하였는데 바로 이들 국가들에서 전형적인 조공체제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페어뱅크이론의 가장 큰 문제는 안보와 실리를 추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국제관계를 한족 중심적 문화론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즉 ‘한족문화지역’에 속하는 한국과 베트남 등의 대중국관계에 있어서 정치·군사적 요소는 문화·이념적 요소에 부차적·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의 역대 왕조는 조공체제의 이념을 수용하여 한족왕조와의 관계가 거의 문화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¹⁾ 그러나 세계사에서 문화적 동화나 유사성이 외교정책에 우선적으로 작용하거나 정치적 갈등을 초월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례는 거의 없다. 전근대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치열하였던 유목문명과 농경문명의 충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일한 문명내의 분쟁이 더 빈번하고 치열하였으며, 동일한 유교 문화권이라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경우도 그 ‘동일한 문화’라는 조건이 이들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을 완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한국과 함께 Sinic Zone의 대표적 국가로 제시한 베트남의 경우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의 보존과 주권의 유지”였으며 조공체제의 계서적(階序的) 관계는 형식·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²⁾

‘조공체제’의 이론은 동아시아 국제관계 연구에서 전근대 한족왕조의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 역사적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역사 경험적인 입장에서 여러 학자들이 문화론적 조공체제 이론에 비판을 제기해 온 이유이다.³⁾ 특히 10세기에서 13세기까지의 동아시아에는 조공체

논문접수일 : 2005년 9월 16일, 게재확정일 : 2005년 9월 30일

1) John K. Fairbank, "A Preliminary Framework,"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13. 페어뱅크의 문화론은 같은 문화권의 국가들은 서로 비슷한 국제질서에 결합하여 다른 문화권의 국가들과 경쟁한다는 선입관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논리는 역사학자들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은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의 ‘문명의 충돌론’(Clash of Civilizations)을 연상하게 한다. 그리고 페어뱅크도 헌팅턴도 소위 ‘문명’간의 충돌은 부각하면서 ‘동일한 문화’안에서의 갈등과 충돌은 과소평가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

2) 유인선, 「중월관계와 조공제도-가상과 실상-」, 『역사학보』 114 (1987), 114.

3) 피터윤(Peter Yun), 「서구학계 조공제도 이론의 중국중심적 문화론 비판」, 『아세아연구』 45.3 (2002).

제의 가설과는 달리 군사적 세력균형에 따른 다원적 국제관계가 지속되었고, 중국은 ‘동등한 국가 중 하나에 불과하였다’는 ("China among Equals") 주장이 있다.⁴⁾ 또 遼金夏元 정복왕조 역사를 정리한 케임브리지 중국사 6권에서는 이 시기 국제관계의 기본 틀을 ‘조공체제’가 아닌 ‘다원체제’(Multistate System)와 ‘조약관계’(Treaty Relations)로 보고 있으나,⁵⁾ 여전히 고려왕조를 ‘중국’의 여러 왕조로부터 ‘책봉’받은 ‘충성스러운 제후국’(a loyal vassal)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아직도 한족 중심적 문화론을 극복하지 못한 느낌을 준다.⁶⁾

10-13세기 다원적 국제관계는 북방민족의 정복왕조 등장과 함께 시작하였다. 저명한 거란역사 학자 칼 비트포겔(Karl Wittfogel)은 한족의 중국왕조에 대칭하여 북방 초원과 만주지역에서 흥기하여 중원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통치한 요(遼), 금(金), 원(元), 청(淸)에 정복왕조(Conquest Dynasties)라는 개념을 적용하였다.⁷⁾ 이들 정복왕조는 문화적으로 뚜렷한 정체성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이원적 통치체제를 실행하였다. 그런데 이들 북방 정복왕조와 중원의 한족왕조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운영되었을까? 과연 기존의 ‘조공체제’의 틀로 이 시대의 국제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 아직도 많은 학자들은 유목민족들이 그들의 척박한 초원 생태 환경에서 스스로 필요한 물자를 충당하여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⁸⁾ 농경민족으로부터 부족한 물자를 무역과 약탈로 충당하려 하였고 그러한 교류를 통해서 그들의 ‘낙후’된 유목문화가 ‘선진’ 한족문화에 동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유목민족은 항상 중원을 주시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매우 단순화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정복왕조 요나라와 금나라의 국제관계사 연구의 초점도 거의 모두 한족왕조 송에 맞추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한족문화의 영향 즉 한화현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북방민족의 정복왕조는 송과 접해있는 남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방향으로 유목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은 종종 초원 지역과 다른 유목민 집단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한족 왕조와는 일단 타협이 이루어지면 평화롭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정복왕조인 요와 금, 그리고 후대의 청은 모두 만주지역에서 흥기하였다. 중원의 왕조를 위협한 가장 큰 존재는 흉노, 돌궐, 위궐 등, 보통 몽골 초원의 유목민이었는데 중국의 정복왕조는 대부분 만주지역에서 온 것일까? 이 문제에 해답을 제시한 학자가 미국의 토마스 바필드이다. 바필드는 동북아시아 국제관계를 정착문명의 중원, 유목문명의 초원(몽골지역), 그리고 삼림과 스텝문명의 만주로 나누어 분석하여 이 지역에는 중원-초원제국의 이원적 체제의 성립과 붕괴, 북중국과 만주를 다스리는 정복왕조의 성립과

4)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225-29

5) Herbert Franke and Denis Twitchett,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16-21.

6) Denis Twitchett and Klaus-Peter Tietze, "The Liao," in Franke, Herbert, and Denis Twitchett,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112.

7) Karl Wittfogel and Feng Chia-sheng, *The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 (907-1125)* (Philadelphia: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49)의 "introduction" (1-32) 참조. 비트포겔의 ‘정복왕조론’은 그 동안 서구와 일본은 물론 대만과 홍콩 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고 많은 논쟁이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유독 중국(대륙)학계만 이 이론을 거의 무시해왔고 간혹 언급이 있더라도 이론의 반대 입장에서만 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북방민족과 한족 간의 대립과 충돌을 강조하는 ‘정복왕조론’이 민족융합과 漢化를 필연적 역사 추세로 보는 중국학계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최근의 한 논문은 ‘정복왕조론’을 20세기 일본제국주의의 중국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일본학자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庫吉, 1865-1942)의 식민사학 논리를 계승한 이론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穆鴻利, 「論13世紀蒙元帝國在再造中華大一統偉業中的貢獻」, 『黑龍江民族叢刊』(2003年 01期), 78-9).

8) Anatoli M. Khazanov, *Nomads and the Outside World*, translated by Julia Crookenden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4), 3.

멸망, 그리고 다시 중원-초원제국의 이원체제로 가는 순환적 패턴이 되풀이 되었다고 보았다. 중국이 유목민족에 보낸 물자가 초원에서 재분배되면서 제국의 정치구조를 지탱하였고 그 물자를 제공하는 한족왕조가 구조적으로 필요하였기에 중원을 정복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동반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고 보고 있다.⁹⁾ 즉 유목민족제국의 정치구조는 초원 내부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유목민족들은 중국을 직접 통치하려 하지 않고 세폐와 무역을 강요하는 정책을 펴나갔다는 것이다.¹⁰⁾ 유목민족에게 한족왕조는 일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고 한족왕조가 내란에 위태로울 때에는 직접 군사를 동원해서 돕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족왕조가 멸망하면 유목제국의 중앙통치를 가능하게 했던 물자의 공급원이 없어지면서 몽골 초원지역은 다시 정치적으로 분산되는데 바로 이시기에 초원-중원의 이원적 국제관계의 변방에 놓여 있던 만주의 북방민족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다고 보았다.

바필드는 만주의 정복왕조를 ‘越境國家’ (Transborder States)로 명명하였는데, 이들 왕조는 만주와 중국, 초원의 변경지역을 모두 통치하였기 때문이다. 만주의 북방민족들은 초원의 유목민족과는 달리 중국왕조와 몽골초원의 세력이 동시에 쇠약해질 때 중국대륙을 정복해 한족을 직접 지배하려 했다고 보았다. 바필드의 이론은 기존의 “무역 혹은 약탈”이라는 단순한 논리를 넘어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유목-정착 문명간의 군사·정치·경제적 교류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만주의 북방민족을 단순히 초원과 중원 제국의 몰락만을 기다리는 기회자로 묘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디코스모(Nicola Di Cosmo)가 지적하였듯이 초원의 유목민족과 만주의 ‘半유목’민족은 그 국가형성의 패턴, 제국적 이데올로기, 국가의례 등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으며,¹¹⁾ 초원과 중원의 제국들이 동반하여 흥기하고 멸망하였다는 주장도 실제 역사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돌궐제국이 6세기 중반에 흥기하였을 때 중원에는 통일된 왕조가 아직 없었고, 거란의 요나라는 송의 건국 이전에 이미 세워졌다. 또 몽골제국의 형성을 중원에 위치한 금과 남송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도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중원-만주-한국의 삼각 구도로 분석을 시도한 기존의 연구 성과에 비추어 볼 때,¹²⁾ 바필드의 중원-초원의 역사적 순환이론은 당시 세력균형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던 고려와 夏 등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통합된 단위로 보고 복잡한 국제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복왕조(요·금)-한족왕조(송·남송) 남북대치와 그 동서로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고려와 하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북방 정복왕조 요와 금, 한족왕조 송, 그리고 고려와 하 사이에 지정학적 세력균형이 이루어진 다원적 국제관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역사 문헌 기록에 나타나는 조공체제 용어의 허구와 실체를 통해 조공체제 이론의 문제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9) 이 논리를 주장하는 대표적 저서에는 Thomas J. Barfield, *The Perilous Frontier: Nomadic Empires and China* (Cambridge and Oxford: Basil Blackwell, 1989), 외에 Anatoly Khazanov, *Nomads of the Outside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와 Peter B. Golden, "Nomads and Their Sedentary Neighbors in Pre-Cinggisid Eurasia," *Archivum Eurasiae Medii Aevi* VII (1987-1991) 등을 꼽을 수 있다.

10) Thomas J. Barfield, *The Perilous Frontier*, 91.

11) Nicola di Cosmo, "State Formation and Periodization in Inner Asian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10.1 (1999), 1-40.

12) Cari K. Ledyard, "Yin and Yang in the China-Manchuria-Korea Triangle,"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313-353. ; 김한규, 『요동사』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1. 정복왕조(요 · 금)와 한족왕조 (북송 · 남송)의 조약관계

13세기 몽골제국 이전까지 만주와 북중국을 통치한 거란과 여진의 정복왕조는 한족왕조 송과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었다. 인구나 경제력에서는 송에게 단연 열세였지만 정복왕조는 기마병으로 구성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약간의 과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 17명의 금나라 기병이 2000의 송나라 보병에 대승을 거두었다는 아래의 기록에서 기마병의 막강한 위력을 엿볼 수 있다.

(1126년) 하북로 병마검할(관직명) 李侃이 병사 2000명으로 금나라 기병 17기와 싸워 크게 패하였다. [이 때 송과 금은] 화의가 이미 결정되어 금나라는 기병 17기에 문서를 주어 그 국중(조정)에 보고하러 보냈는데 그들이 磁州를 지나게 되었다. 이간은 자신이 병관으로서 [여진을] 기습하라는 황제의 명령을 받고 있었기에 禁軍과 민병 2000을 거느리고 공격하였다. 17의 [여진] 기병과 맞섰을 때 금나라 병사가 말하였다. “군사를 부릴 필요가 없다. 지금 성 아래 (즉 송의 수도 汴京)에서 이미 강화를 맺었다. [이 사실을] 조정에 가서 보고하도록 태자낭군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이간은 믿지 않고 싸우려고 하였다. [이에 여진] 기병 17기는 셋으로 나누어 7기를 앞에 두고 각 5기씩 좌우 날개로 삼았다. 조금 후에 앞의 7 기병이 돌격하자 관군은 약간의 틈을 보였다. 이에 좌우 날개에서 기세를 잡아 공격하였는데 달리면서 [화살]을 쏘았다. 관군은 어지러이 도망하였고 죽은 자가 거의 반에 이르렀다 (河北路兵馬鈐轄李侃 以兵二千與金人十七騎戰敗績 和議已定 金人遣十七騎持文字報其國中 經由磁州 李侃以身爲兵官 且承掩殺之旨 乃率禁軍民兵二千往擊之 與十七騎相遇 金人曰 不須用兵 今城下已講和矣 我乃被太子郎君差往國中幹事 侃不信欲與之戰 十七騎者 分爲三 以七騎居前 各分五騎爲左右翼 而稍近後 前七騎馳進 官軍少卻 左右翼兩勢掩之 且馳且射 官軍奔亂 死者幾半).¹³⁾

정복왕조는 그들의 우월한 기마병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원의 한족왕조를 위협 · 압박하여 물자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일단 세폐 등의 형식으로 안정된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조약체제가 성립되면 현상유지의 국제관계를 추구하려고 하였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선입관과는 달리 오히려 조약체제를 파기하고 국제정세의 변화를 꾀한 것은 ‘공격적’인 정복왕조가 아니라, 여진을 불러들여 거란을 치고 또 몽골과 연합하여 여진을 치려고 한 ‘文治主義’의 송이었다. 10세기 후반 송나라는 중원을 통일한 후 연운16주를 회복하려고 요를 공격하지만 실패한다. 그러나 송은 시종 이 영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고 송의 영토 집착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10세기 후반에 거란과 송은 군사적으로 대치하면서 몇 차례 대규모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11세기 초 전환은 요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1004년 겨울 거란군은 송의 수도 開封에서 약 100 km 정도 밖에 떨어진 지 않은 澶淵까지 진군하였고 두 나라의 군대는 대규모 전쟁을 앞두고 있는 듯하였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열세였던 송은 수비자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고, 적국 깊이 진격한 거란은 그 퇴로를 차단당할 위험이 가지고 있었다. 결국 양국은 협상과 타협으로 1004-5년에 澶淵之盟을 맺는데 맹약의 주요 내용은 송이 매년 비단 20만 필과 은 10만 량의 세폐를 보내고, 양국의 국경을 확실하게 정하여 준수하며, 국경을 넘은 도망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경지역에서 새 군사시설을 건설하지 않아 상대방의 영토보전을 서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¹⁴⁾

13) 『三朝北盟會編』(『四庫全書』 文淵閣本), 36:9b2-10a2.

14) 澶淵之盟에 대한 중국의 연구 성과로는 蔣復璁, 『宋史新探』(正中書局, 1966)과 王民新, 『澶淵締盟的檢討』, 『食貨月刊』(1975), 97-107가 있다.

澶淵之盟은 이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조약으로 이후 다른 조약의 모델이 되었는데 그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조약 문서에 들어 있는 용어의 상징적인 의미이다. 송은 거란에 바치는 ‘貢’의 성격인 비단과 은을 ‘歲幣’라고 하여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였고, 세폐의 전달을 하위 관료에게 맡겨 단순한 경제적인 거래로 치부하면서 정치적으로 열세의 지위에 있었다는 모습을 애써 지우려고 하였다. 두 나라는 서로를 ‘북조’ 혹은 ‘남조’라고 칭하면서 양국의 황제들은 ‘형제’관계를 맺고 황실에 확대 적용하여 송 황제는 요의 황태후를 ‘숙모’로 요의 황제를 ‘동생’으로 공식적으로 호칭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시기 송 황제가 종종 요 황제의 ‘兄’이 된 것은 우연이었을 뿐 송이 요의 위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다. 요와 송 황제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은 실제 황제들의 나이와 세대에 따른 것이어서 각 재위기간마다 달리 나타나 叔(伯)姪의 관계가 되기도 하였고, 근 반세기동안 재위한 요의 道宗(1055-1101)은 송 哲宗(1085-1100)에 두 세대를 앞서 ‘작은 할아버지’(叔祖)가 되기도 하였다.¹⁵⁾ 양국은 이렇게 서로를 동등하게 대우하면서 신년과 황제의 생일, 황실의 부음과 즉위 등시기에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하게 된다. 澶淵之盟은 한족 왕조를 천하의 중심임을 설정한 기존 국제질서의 틀이 더 이상 수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와 송은 1042년과 1074-6년에 심각한 군사적 충돌의 위기가 있었으나 澶淵之盟으로 시작한 조약체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였고 동아시아 경제·문화적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11세기 조약체제에서 송은 거란과 하에게 매년 총 50만 필의 비단과 30만 량의 은의 세폐를 보내 북쪽과 서북쪽 변경지역의 안정과 보전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또 전형적 ‘以夷制夷’ 정책으로 위궤, 티벳, 그리고 거란 등을 이용하여 하를 견제하였고,¹⁶⁾ 거란과의 세력균형에는 다시 하와 고려를 이용하려고 하였다. 송은 특히 군사동맹의 대상으로 서로 국경을 맞대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문물을 숭상’한다고 생각한 고려를 주시하였다. 예를 들면 1040년대 중반 송의 관료 富弼은 고려가 거란의 군사력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서 북방 국경지역의 안정을 위해 고려와의 동맹을 적극 추진하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¹⁷⁾ 송이 고려를 포섭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시기는 王安石이 新法을 시행하고 있던 1068년에서 1085까지이며, 1078년에 근 40여년 만에 이루어진 송-고려 국교 재개는 고려와 연합하여 요를 누르려고 하는 신법의 정책과 상통하는 것이었다. 신법은 사천과 티벳지역의 차 전매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으면서 매년 15,000마리의 말을 확보하였으며,¹⁸⁾ 북방의 침략 위협에 대비하여 125만에 이르는 병력을 유지하고 갑옷과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였다.¹⁹⁾ 이 시기 고려는 여러 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조공’으로 보낸 ‘방물’에 대해 후하게 보상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단 한 번도 송의 군사동맹 제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송에는 蘇軾처럼 고려와의 관계가 송에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으며 고려가 거란을 대신하여 간첩행위를 하고 송의 회사품을 거란에 바치고 있다고 비난하는 관료들이 있었다.²⁰⁾ 송의 반고려 인식은 왕안석의 신법을

15) 陶晉生, 『宋遼關係史研究』(聯經出版社, 1984), 26-27의 표 참조.

16) 金涇巖, 『北宋의 對西域 政策』, 『明知史論』 2(1988).

17) 『續資治通鑑長編』, 150.3650-3; Michael C. Rogers, "Factionalism and Koryô Policy under the Northern Sung,"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79 (1959), 18-22.

18) Paul J. Smith, "State Power and Economic Activism during the New Policies, 1068-1085: The Tea and Horse Trade and the 'Green Sprouts' Loan Policy," in Robert P. Hymes and Conrad Schirokauer, eds. *Ordering the World: Approaches to State and Society in Sung Dynasty China*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81-99; Peter K. Bol, "This Culture of Ours": *Intellectual Transitions in Tang and Sung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2), 246-53.

19) John R. Labadie, "Rulers and Soldiers: Perception and Management of the Military in Northern Sung China (960-ca. 1060)" (Ph.D. diss., University of Washington, 1981), 47.

20) 蘇軾, 『論高麗進奉狀』 「論高麗進奉第二狀」(『蘇軾文集』, pp. 847-849, 857-858); 『宋史』, 487.14052. 송나라 관료들이 고려를 보는 관점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박지훈, 『宋代 士大夫의 高麗觀』, 『梨花史學研究』 30(2003)이 있다.

반대하는 舊法黨의 관료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송 조정에서의 파벌 투쟁과도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고려가 송의 ‘화이론’에 동조하지 않고 실리만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11세기 후반 고려와 송은 서로의 존재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가지는 견제 역할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거란도 역시 이러한 세력균형을 인식하고 송-고려의 동맹을 회유와 위협으로 적극 막고 있다.²¹⁾ 세력균형은 12세기 초 잠시 무너지는데, 요가 내분에 시달리면서 여진의 압박을 받자 송나라의 휘종(1101-1125)은 여진과 동맹을 맺고 고려와의 군사적 동조를 도모한다. 송은 고려를 반거란 군사동맹에 끌어들이기 위해 政和年間(1111-1117)에 고려에 주는 하사품을 이전의 배로 늘리고 고려의 학생이 송 수도에서 공부할 수 있게 허락하며, 기존에 요의 사신에게만 적용한 國信使의 지위와 대우를 고려에게도 부여하여 夏보다 우대하였다.²²⁾ 송은 또 고려가 조공을 통하여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식하여,²³⁾ 양국 간의 문화적 공통점을 강조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보상을 제시하여 고려를 포섭하려고 하였으나, 고려는 군사동맹을 계속 거부하면서 오히려 송-여진 동맹의 위험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요에 대한 복수심과 燕雲16州 수복을 꿈꾸는 송은 고려와 송 관료들의 경고를²⁴⁾ 무시하고 여진과 군사동맹을 맺어 1123년에는 靺鞨를 교환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송이 연운16주를 다시 찾는 조건으로 이전에 요에 보내던 세폐를 여진에 대신 준다는 것이었다.²⁵⁾ 여기서 우리는 송이 거란을 공격하려고 한 목적이 새로운 한족중심의 세계 질서 구축이 아니라 요에 대한 복수와 잃어버린 영토의 수복이었음을 알 수 있다.

12세기 초 요가 여진과 송의 협공으로 무너지자 과연 고려가 예측한대로 금은 송의 새로운 위협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금나라도 당시의 세력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금은 송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고려와 하를 의식하여 1124년에는 하가 ‘조공’하는 조건으로 평화조약을 맺었고,²⁶⁾ 아직 ‘조공’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은 고려와의 국경지대에는 수비를 재정비하고 있다.²⁷⁾ 1126년 금나라가 비록 송의 수도를 함락하고 송 徽宗과 欽宗이 사로잡았지만 1127년 이후 수년간 송 조정을 쫓으며 양자강 유역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岳飛 등의 활약과 북중국지역 한족의 저항에 부딪쳐 좌절되었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세력균형은 1140년대 초에 다시 성립되어 1142년의 송-금 간의 조약으로 이어지는데 그 조건은 송이 금에 淮河 이북 지역을 할양하고 매년 은 25만 냥, 비단 25만 필의 세폐를 바치는 것이었고 다른 국경지역의 군사시설과 도망자에 관한 조항은 澶淵之盟과 유사하였다.²⁸⁾

요(금)-송(남송)-하 · 고려의 다원적 국제관계의 조약체제는 정기적으로 國信使, 賀正使, 聖節使, 橫宣使, 生辰使 등의 외교사절을 교환하여 서로의 이견이 군사적 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²⁹⁾ 비록 1161년과 1206-1208년의 충돌이 있었지만 조약체제는 13세기 몽골제국 흥기 이전까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21) Jing-shen Tao, *Two Sons of Heaven: Studies in Sung - Liao Relations* (Tucs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88), 85.

22) 『高麗史』, 15:168-9; 『宋史』, 21:395, 397, 487.14049.

23) “惟高麗素通朝聘, 久被漸摩...”(『高麗圖經』(아세이문화사, 1972), 47).

24) 『高麗史』, 15:34a6-9, 95:11b9-12a2; 『補閑集』, 上, 14a4-6; 『宋史』, 487.14049; Jing-shen Tao, *Two Sons of Heaven*, 88.

25) Herbert Franke, "Treaties between Sung and Chin," *Études Song/Sung Studies*, series 1 (1970), 60-68.

26) 『金史』, 3.49

27) 『金史』, 135.2885

28) 『金史』, 77.1755-6.

29) 10-13세기 정기 외교사절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Herbert Franke, *Diplomatic Missions of the Sung State, 960 - 1276*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81); 朴漢男, 「高麗 前期橫宣使小考」, 「阜村申延澈教授停年退任紀念 史學論叢」(阜村申延澈教授停年退任紀念史學論叢刊行委員會, 1995); 吳玉亞·包偉民, 「變動社會中的外交模式—從宋廷對高麗使臣接待制度看宋麗關係之流變」, 「山東師範大學學報」(2004-1) 등이 있다.

교류 그리고 경제적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군사적 열세를 歲幣로 해결한 송에게 있어서도 물자적인 부담은 과다하지 않았고 송 관료들은 이러한 조약체계를 외교적 성공으로 생각하였다.³⁰⁾ 물론 세폐와 이웃 국가와의 소금 등의 밀수가 송의 경제를 큰 악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도 있지만,³¹⁾ 세폐의 액수는 전쟁 비용의 1-2 퍼센트, 그리고 송나라 일 년 예산의 0.5 퍼센트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³²⁾ 그리고 요나라에 보낸 비단은 송의 일개 郡의 생산량 정도였고 그 중 최소 60% 이상은 국제무역에서 큰 흑자를 본 송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추정하기도 한다.³³⁾

13세기 초 몽골이 등장하기 전까지 북중국과 만주를 지배한 요와 금은 송과 동등한 혹은 우월한 상대로 존재하였다. 북송을 “재현된 중화제국 재건의 표현”으로 隋唐 혹은 明初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³⁴⁾ 곧 수세에 몰렸고 아무리 스스로 천하의 중심이라고 자처하여도 당시의 지정학적 현실에서는 ‘변방’에 불과하였다. 특히 남송 시대에는 상당수의 한족인구와 한족문화권은 한족왕조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중원을 금에 빼앗긴 충격으로 남송시대의 시각이 “내부지향적”(China turning inward)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³⁵⁾ 남쪽 ‘변방’으로 밀려난 송은 군사적 열세와 공간적 손실을 문화적으로 만회하려고 하였고 그러한 노력은 ‘한족문화의 중심’을 자처하는 문화론의 전개로 이어지게 되었다.³⁶⁾

다원적 국제관계는 그 형식과 의례에 있어서도 기존의 조공체제와 근본적으로 달랐다. 북방의 정복왕조와 남방의 한족왕조를 동등하게 인식되었고, 두 명, 때로는 세 명의 ‘천자’가 동시에 존재하며 한족왕조를 천하의 중심으로 설정한 이전의 허구적 논리는 종식되었다. 결국 송 초기 973-4년에 편찬된 『舊五代史』에서는 북방민족과 그들의 국가에 ‘夷狄’ 등의 卑稱이 아닌 중립적 단어인 ‘外國’을 사용하고 있으며,³⁷⁾ 이는 송이 스스로 다원적 국제관계에서 하나의 축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수용했다는 증거이다.

2. 동아시아 세력균형에서의 고려와 하의 견제 역할

몽골제국 이전 동아시아에 존재한 다원적 국제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는 북방의 정복왕조였고 그 다음이 한족왕조인 송이었다. 하지만 당시 그들의 동과 서에 위치하여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던 고려와 하의 역할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거란이 비록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였지만 사방으로 적국에 포위되어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세력균형의 한 축에 불과하였다. 『遼史』는 당시의 거란이 당면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요의 경계는 동으로 고려에 접하고 남으로는 梁唐晉漢周宋 여섯 왕조의 강적이었으며 북으로는 阻卜과 朮不姑 등의 십여 개의 대국과 인접해 있었다. 서로는 西夏, 党項, 吐渾, 回鶻 등 백에 이르는 강국을 제어하였다. [요는] 사방으로 전쟁지역에 놓여, 그 사이에 호랑이처럼 웅크리고 있어서 아무도 정면으로 맞서

30) Jing-shen Tao, *Two Sons of Heaven*, 24.

31) Karl Wittfogel and Feng Chia-sheng, *The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 151, 174.

32) 『續資治通鑑長編』(中華書局), 70.1578; Wong Hon-chiu, "Government Expenditures in Northern Sung China (960-1127)." (Ph.D. 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75), 158.

33) Denis Twitchett and Klaus-Peter Tietze, "The Liao," 110.

34) 김성규, 「송대 조공질서의 재편과 그 양상」, 『歷史學報』 185 (2005), 149.

35) James T. C. Liu, *China Turning Inward: Intellectual-Political Changes in the Early Twelfth Centu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36) 박지훈, 「北宋代 華夷論의 性格」, 『梨花史學研究』 29(2002), 63; Q. Edward Wang, "History, Space, and Ethnicity: The Chinese World View," *Journal of World History* 10.2 (1999), 300-01.

37) 『舊五代史』, 137.1827-46

려고 하지 않았다 (遼境東接高麗, 南與梁唐晉漢周宋六代爲勁敵, 北鄰阻卜朮不姑, 大國以十數, 西制西夏党項吐渾 回鶻等, 強國以百數. 居四戰之區, 虎踞其間, 莫敢與擾...)³⁸⁾

요나라와 송나라의 서쪽에 위치한 당구트(党項)족의 夏는 10세기 말에 건국되어 1227년 몽골에 의해 정복당할 때까지 존재하였는데 嵬名元昊가 稱帝建元한 1038년으로부터 계산하여도 근 200여 년 동안 宋 遼金과 삼각으로 대치하였던 국가이다. 다만 하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국가가 없었고 당시 하가 지배한 지역은 증원의 변방으로 인식되었기에 중국의 사가들은 하를 정통왕조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원대에 하의 독자적인 역사는 편찬하지 않아 『遼史』, 『宋史』, 『金史』의 列傳에 그 역사의 일부가 전할 뿐인데 正史의 외국 열전 기록이 모두 그렇듯이 하에 대한 기록도 증원왕조와의 관계에 맞추어졌고 하 고유의 문화와 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그러나 소략한 역사 기록에도 불구하고 하가 독립된 국가로 다원적 국제관계의 한 축이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宋史』도 하가 비록 책봉은 받았지만 실제로 신복한 적이 없다고 적고 있다.³⁹⁾

하-송의 관계에서도 먼저 공격적으로 나온 것은 송이었다. 송은 10세기 말에 서역으로 통하는 무역로와 말, 소, 소금 등의 자원이 풍부한 오르도스(현재의 甘肅省)지역을 차지하기위해 하에게 공격의 자세를 취한다.⁴⁰⁾ 그러나 거대한 영토, 많은 인구, 그리고 부유한 경제력을 가진 송은 기동성이 뛰어나고 우수한 탕구트 기병에게 패배를 거듭 당하고 만다. 더욱이 송의 관료들은 유목민 전통의 거란과 하가 서로 연계하여 송을 압박해 더 많은 세폐를 받아내려고 한다고 믿었고,⁴¹⁾ 결국 송은 어느 한쪽에 군사적 자원을 집중할 수 없었다. 夏는 외교정책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였는데, 하의 李繼遷은 986년에 요에 조공하고 3년 후에는 거란 황실의 공주와 결혼하고 그 다음해에 정식으로 夏國王으로 책봉되었다.⁴²⁾ 당시 요-하-송 삼각관계의 세력균형은 송으로 하여금 선불리 공격을 시도하는 것을 억제하였다. 실제로 하의 李繼遷이 1004년 티벳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여 위기를 맞았으나 송은 거란의 군사적 압박 때문에 기회를 잡아서 하로 진격하지 못하였다.⁴³⁾ 1004년 송과 요 사이에 澶淵之盟은 2년 후 1006년 송-하의 조약으로 이어졌는데, 하는 형식적으로는 誓表를 올려 송의 '우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매년 세폐 銀 만 냥, 비단 만 필, 전 3만관, 그리고 차 2만 근과 그리고 송에 소금을 무역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였다.⁴⁴⁾ 즉 명분은 송이 건졌지만 그 실리는 모두 하의 몫이었다.

그러나 1032년 즉위한 李元昊는 세폐라는 실리에만 만족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도 동등한 대우를 원하였다. 당 조정이 하사한 李성을 1038년에 嵬名으로 바꾸고 스스로 大夏皇帝를 자처하면서 송이 이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⁴⁵⁾ 그러나 이미 요나라를 동등한 관계를 인정한 송 조정이 그 변경에 또 하나의 '황제'를

38) 『遼史』, 46.742.

39) “概其歷世二百五十八年, 雖嘗受封冊于宋, 宋亦稱有歲幣之賜, 誓詔之答, 要皆出於一時之言, 其心未嘗有臣順之實也 (『宋史』, 486.14030).

40) Ruth Durnell, "The Hsi Hsia," in Denis Twitchett and John K. Fairbank, eds.,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vol. 6 of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168-172. 오르도스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Arthur Waldron, *The Great Wall of China: from History to My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91-139 참조.

41) Jing-shen Tao, *Two Sons of Heaven*, 57-8, 63.

42) 『遼史』, 11.119, 12.134, 13.140; 吳天燾, 「西夏史稿」(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80), 92-9; Ruth Durnell, *The Great State of White and High: Buddhism and State Formation in Eleventh-Century X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6), 13.

43) Durnell, "The Hsi Hsia," 172.

44) 『宋史』, 485.13989-90.

45) 金涇顯, 「西夏與宋契丹之關係(986-1048)」, 『明知史論』 7 (1995), 85-92.

인정할 수는 없다고 거절하자 하-송간의 전쟁으로 확대되는데 이 시기의 전쟁과 국제관계의 전개는 당시의 세력균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삼각의 세력균형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처럼 하와 송이 충돌하자 거란은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한다. 하가 거란에게 연합하여 송을 치자고 제의한 것을 거절하지만 송으로부터 더 많은 액수의 세폐를 얻게 되었는데,⁴⁶⁾ 정확하게 말하자면 요-하 연합을 두려워한 송이 먼저 세폐의 증액을 제의하여 요의 개입을 막으려 한 것이다. 1042년 협상에서 요는 하-송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만으로 澶淵之盟이 정한 액수보다 10만 량의 비단과 10만 필의 더하여 받게 되었고,⁴⁷⁾ 당시 송이 요에 보인 소극적 자세는 송의 ‘세폐’가 『遼史』의 『興宗本紀』와 劉六符의 傳記에 분명하게 ‘貢’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⁴⁸⁾ 그런데 송과의 계속된 전쟁에서 여러 번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의 대부분이 요에게 돌아간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하의 거란이 송을 대신하여 협상을 중재하자 급기야는 1043년 거란과 충돌하게 된다. 즉 요와 하의 관계는 명목상 책봉-조공의 관계였으나 그것이 ‘지배-종속’의 관계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요와 하가 충돌하자 하는 송과의 신속한 타협을 위한 반면 요는 송에게 아직 타협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⁴⁹⁾ 그러나 송은 적대 관계인 두 유목민족 국가가 전면전으로 나아가도록 1044년에 “誓詔”를 통해 嵬名元昊를 ‘하국주’(夏國主)⁵⁰⁾로 책봉하고 歲賜(즉 歲幣)로 255,000 액수의 은, 비단과 차를 약속한다.⁵¹⁾ 여기서 주목할 것은 “誓表”와 “誓詔”라는 혼성적인 외교적 문서의 등장이다. 서약의 “誓”가 동등한 관계를 나타낸다면 “表”와 “詔”는 위계적인 관계를 반영하였는데,⁵²⁾ 이 시대 국제관계의 형식이 다른 시기와는 변형된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요 분쟁은 1044년과 1049년의 대규모 전쟁과 소규모의 충돌이 있었지만 그 갈등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⁵³⁾ 요와 하 모두 그 외교정책의 목표는 송으로부터 고정된 세폐의 물자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들 사이의 소모적인 전쟁을 오래 지속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며, 군사적 자원을 서로의 전쟁에 투입할 수 없었고 또 투입할 의사도 없었다.

이렇게 조약체계의 성립과 조정과정에서 송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하와 군사적 충돌이 있었지만, 고려와는 아무런 무력적 충돌도 없이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학자들은 이 ‘우호관계’를 양국의 문화적 유대감과 연결하여 해석하기도 하며, 송나라 태종이 985년 고려에 보낸 조서에서 “오래 중국의 풍속을 사모한” 고려왕에게 두 나라가 연합하여 오랑캐인 요를 공격하고 그들의 문명을 지키자고 제안한 것에 주목한다.⁵⁴⁾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고려가 송 태종의 제안은 물론 다른 모든 군사 동맹 제안도 모두 거절한 것이다. 고려가 아무리 송나라의 문화를 ‘흡모’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려의 북방 경계와 국가의 안보에 우선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송의 對고려정책을 군사동맹이란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지만, 고려의 대송 정책은 초기에 정치군사적인 것이었으나 요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감소한 후에는 점차 문화적 교류와

46) 『遼史』, 19.229

47) 『遼史』, 19.227; Jing-노두 Tao, *Two Sons of Heaven*, 61

48) 『遼史』, 19.227, 86.1323.

49) 『續資治通鑑長編』, 151.3668.

50) 여기서 ‘主’의 칭호는 하 통치자의 지위를 ‘主’으로 본 송과 ‘皇帝’를 요구한 하 사이의 타협의 결과로 볼 수 있다.

51) 『續資治通鑑長編』, 152.3705-6; 『宋史』, 11.219

52) Michael C. Rogers, "The Chinese World Order in Its Transmural Extension: The Case of Chin and Koryô," *Korean Studies Forum* 4 (1978), 8.

53) 『遼史』, 19.230-31, 20.240

54) “惟王久慕華風 素懷明略 效忠純之節 撫禮義之邦 而接彼犬戎 罹於蠱毒 舒泄積忿 其在茲乎”(高麗史 3.8b4-6). 『宋史』에도 같은 기사가 있는데 다만 경멸적인 ‘而接彼犬戎’의 문구를 중립적인 ‘而接彼邊疆’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宋史』, 487.14038).

무역에 비중이 주어졌다고 보고 있다.⁵⁵⁾ 그러나 이렇게 송의 정책에는 정치적인 면을, 고려에는 문화적인 면을 강조하는 시각은 자칫 고려가 추구한 대외정책의 기본 목표가 지정학적 세력균형을 통한 국경의 안보하는 정치적 요소를 희석시키고 문화적인 면을 강조하여 ‘조공체제’의 문화론에 동조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문화적인 요소도 중요하였지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문화적·경제적 요소는 언제나 국경의 안보와 같은 정치적 목적에 부차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고려는 송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한 문화교류와 경제무역을 원했지만 그로 인하여 북방 정복왕조와 정치 군사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연운 16주를 회복하려는 송은 계속해서 고려를 군사동맹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하지만 고려는 한 번도 호응하지 않았고 요가 고려를 침략하지 않는 한 고려가 송과의 군사동맹을 추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결국 고려와 송은 서로를 잠재적 동맹국으로 생각했지만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없으면 개입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북방 정복왕조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고려와 송을 동시에 공격하면 양국의 군사 동맹이 실현될 수도 있기에 어느 한쪽을 공격하기 전에 다른 한쪽과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하였다. 즉 송-고려의 관계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송-요의 관계였고 송-요 관계 역시 송-고려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실제로 요는 송과의 군사적 충돌 시기 중에는 고려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반대로 송과 澶淵之盟이 맺어진 후 얼마 안 되어 고려에 대대적인 침략을 하고 있다. 고려와 거란과의 관계는 국경의 안보문제로 긴장이 돌았는데, 11세기 전반(1035-1044) 거란의 관료 蕭韓家奴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신이 보건대 최근 몇 년 동안 고려는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 더구나 발해, 여진, 고려는 연합하여 [우리에 대적하고 있으니] 항상 토벌을 하고 있습니다(臣伏見比年以來, 高麗未賓... 況渤海女直高麗合從連衡, 不時征討).⁵⁶⁾

고려는 국경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한 국제정세의 현상유지를 고수하는 조심스러운 외교관계를 추구하여 송의 동맹 제의를 시종일관 거부하였다. 고려는 다원적 국제관계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잘 알고 이를 능동적으로 이용하였고 송에게 두 나라가 ‘唇亡齒寒’의 동반자 운명에 놓여 있으며 국제관계의 세력균형 유지가 최상의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⁵⁷⁾ 그러나 고려가 계속 송의 요청을 거절하자 남송 조정은 먼저 고려와의 공식 관계를 끊어버리는데,⁵⁸⁾ 이는 남송이 천하 중심을 자칭한 한족왕조로서의 假飾마저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국경지역의 안보를 대외정책의 최우선으로 한 고려에 있어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금과의 관계가 송보다 우선일 수밖에 없었다.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두 개의 부분적으로 겹치는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동북쪽에는 고려-(남)송-요금이, 그리고 서북쪽에는 하-(남)송-요금이 있었는데 고려와 하는 남북으로 대치한 정복왕조와 한족왕조 사이의 분쟁에 얽히지 않으려고 견제하면서 독자적이고 실리적인 외교정책을 펴나갔다. 고려와 하가 강대한 요·금과 북송·남송의 충돌과 경쟁을 적극 이용하는 정책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은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에서의 고려와 하의 위상과 영향력을 말해준다. 탕구트국의 군사력은 송·요와의 전쟁에서 이미 그 위력을 발휘하였고 고려 역시 요의 대군을 괴멸한 전적이 있었다. 고려는 문종(1046-83)대에 이르러서 군비확충과 병제정비, 그리고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정책으로 군사력을 크게 강화하였고,⁵⁹⁾ 이러한 고려의 군사력은 12세기 초 윤관의 성공적인 여진정벌이 보여주듯 이웃 국가들이 결

55) 박용운, 「고려 송 교빙의 목적과 사절에 대한 고찰」, 『한국학보』 81(1995), 190-210.

56) 『遼史』, 103.1446.

57) 『高麗史』, 16.38b5-39b4.

58) 『高麗史』, 16.8b3-9.

59) 민현구, 「고려전기의 대외관계와 국방정책: 문종대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99(1998), 9-16.

코 무시할 수 없었다.⁶⁰⁾ 고려와 하가 유사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 있었고 유사한 대외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없으며, 실제로 『宋史』, 『遼史』, 『金史』는 종종 고려와 하를 같이 묶어서 서술하고 있다. 물론 하는 요와 송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그 두 국가와 모두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지만, 이에 비해 고려와 송은 공유한 국경지역이 없어서 당연히 군사적 충돌도 없었기에 고려는 송에게 더 ‘충성스러운 조공국’으로 비추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금이 회하이북을 차지하면서 송과 하가 더 이상 국경을 마주하지 않자 양국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지정학적인 논리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다.

고려와 하가 명목상의 ‘조공체제’의 형식을 어느 정도 따르기도 하였지만 이는 ‘속국’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었다. 다원적 국제관계에서 고려와 하는 형식적인 ‘조공’만을 선택적으로 하였고 정복왕조에 조공을 한다고 해서 한족왕조 송과의 관계를 아주 끊은 것도 아니었다.⁶¹⁾ 고려가 거란의 연호를 시행하고 조공을 하여 ‘다국적 [국제관계의] 현실’(multi-state reality)로부터 가리어져 있었다는 어느 학자의 주장은⁶²⁾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과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면서 동아시아 세력균형의 한 축을 이룬 고려와 하를 위상과 역할을 무시한 것이다. 이 시대 국제관계의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조공제도 이론의 틀에 의한 형식적인 해석보다는 당시의 다원적 국제관계에서의 이념·제도적 형식과 정치적 실상을 구분하면서 지정학적 세력균형과 실리주의에 입각한 각 국가의 외교정책을 비교·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역사기록의 허구와 실제: ‘조공,’ ‘책봉,’ ‘연호시행’의 의미

10-13세기의 다원적 국제관계는 군사력의 균형에 의해 유지되었다. 그리하여 한족 중심적 문화론에 의거한 ‘조공체제’의 형식인 ‘조공’과 ‘책봉’ 그리고 ‘연호시행’ 등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극히 명목적인 것이었으며 형식마저도 종종 무시되었다. 송대의 동북아시아 국제관계를 ‘외교적 동등관계’ (“diplomatic parity”)라고도 하지만,⁶³⁾ 실제로는 한족왕조의 군사적 열세를 의미하였다. 그 극단적인 예가 바로 『金史』에 있는 1141년의 송의誓表인데, 남송을 건국한 고종은 직접 자신의 이름 ‘構’를 사용하면서 신하를 자칭하였고, ‘보잘것없는 나라’(弊邑) 송이 상국인 금나라에 회하이북의 땅을 할양하고, 황제의 생일과 신년을 하례하는 사절을 보내며, ‘歲幣’가 아닌 ‘歲貢’으로 매년 은 25만량과 비단 25만 필을 보낼 것을 약속하고 있다.⁶⁴⁾ 이러한 송의 태도나 조공품의 규모는 고려나 하가 요와 금에 보인 ‘조공국’의 면모를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와 하를 항상 ‘중국’의 ‘조공국’(tributary state)이라고 하면서, 금으로부터 책봉을 받고⁶⁵⁾ 금에 ‘誓表’와 貢物을 바친 남송에게는 ‘조공국’의 호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분명 한족 중심적 화이사상에 입각한 편견 때문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⁶⁶⁾

60) 몽골도 고려의 군사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고려와 남송간의 군사동맹을 경계하기도 하였다(『元高麗紀事』(臺灣 廣文書局, 1972), 19a4-5, 20a7-8).

61) Dunnell, "The Xi Xia," 169

62) Michael C. Rogers, "The Chinese World Order in Its Transmural Extension: The Case of Chin and Koryô," 10.

63)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12.

64) 이誓表의 내용은 송나라 측의 어느 문헌에도 남아 있지 않지만 『金史』完顔宗弼의 전기에 남아있다. “皇統二年二月... 宋主遣端明殿學士何籀等進誓表, 其表曰, 臣構言, 今來畫疆, 合以淮水中流爲界, 西有唐鄧州割屬上國. 自鄧州西四十里并南四十里爲界, 屬鄧州. 其四十里外並西南盡屬光化軍, 爲弊邑沿邊州城. 既蒙恩造, 許備藩方, 世世子孫, 謹守臣節. 每年皇帝生辰并正旦, 遣使稱賀不絕. 歲貢銀絹二十五萬兩匹, 自壬戌年爲首, 每春季差人一般送至泗州交納. 有渝此盟, 明神是殛, 墜命亡氏, 踏其國家. 臣今既進誓表, 伏望上國蚤降誓詔, 庶使弊邑永有憑焉”(『金史』, 77.1755-6).

65) “三月辛丑... 丙辰, 遣左宣徽使劉審以哀嬖主冊宋康王爲帝”(『金史』, 4.78).

아무튼 고려와 하가 요, 금,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고 한 기록에 의거하여 이를 곧 지배-종속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조공체제의 문헌적 형식에 얽매어 당시의 실제 정치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여기 10세기 거란-후진-고려 삼국 간의 ‘책봉’ 관계를 통해 ‘조공체제’의 실상을 살펴보자.

- A. 二十一年 [938] ... 가을 7월 ... 이달에 처음으로 후진의 연호를 시행하였다 (秋七月 ... 是月 始行後晉年號).⁶⁷⁾
- B. 二十二年 [939] ... 이해에 [後]진이 국자박사 謝攀來를 보내 왕을 개부의동삼사 검교태사로 책봉하고 다른 [벼슬]은 전과 같게 하였다 (是歲 晉遣國子博士謝攀來 冊王爲開府儀同三司檢校太師 餘如故).⁶⁸⁾
- C. 十一月 [936], 오랑캐의 왕(거란황제를 뜻함)이 [후진] 황제를 병영에서 만나 황제에게 말하였다. “... 너의 자태와 용모가 크고 견식이 깊은 것을 보니 진정 [한]나라의 주인이 될 만하다. 하늘의 뜻이 여기 있으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리라. 여러 변방의 유목민과 한족들의 세론을 따르고자하여 이에 너를 천자에 책봉 한다” (戎王會帝於營, 謂帝曰, ... 觀爾體貌恢廓, 識量深遠, 眞國主也, 天命有屬, 時不可失, 欲徇蕃漢羣議, 冊爾爲天子).⁶⁹⁾
- D. 十一月丁酉 [936], “[석]경당을 大晉皇帝에 책봉하였다” (冊敬瑄爲大晉皇帝).⁷⁰⁾

위의 기록에서 高麗 태조가 938년에 後晉의 天福 연호를 채택하였고 (A) 그 다음해인 939년에는 후진으로부터 책봉되었음을 (B)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936년에 요나라 태종이 후진의 石敬瑄을 ‘天子’(C) 혹은 ‘大晉皇帝’(D)로 책봉한 사실이 『舊五代史』와 『遼史』에 기재되어 있다. 즉 후진의 ‘천자’ 혹은 ‘황제’는 천명을 받아서가 아니라 거란의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아서 비로소 ‘황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황제를 전통 중국 세계질서의 정점으로 보는 조공체제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납득이 가지 않지만 당시의 거란-후진 관계를 살펴보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거란은 석경당을 後晉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군사원조를 하였고 그 대가로 소위 연운16주와 매년 조공품을 받게 되었으니, ‘황제’ 石敬瑄은 실제 “거란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존재”(nothing more than a puppet of the Khitan)였던 것이다.⁷¹⁾ 나아가 거란의 황제가 석경당을 ‘천자’로 책봉하였다는 것은 거란이 ‘천자’의 존재를 당시 한족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일원적 국제질서의 최고 지위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거란 황제가 후진 황제를 책봉하고 후진 황제는 다시 고려국왕을 책봉하였으니 고려는 후진의, 그리고 당연히 거란의 ‘조공국’이 된다는 것일까? 당시의 정치상황을 조금만 살펴보면 거란-후진-고려의 ‘책봉관계’가 실제 국제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책봉의 상관관계로만 보면 고려는 후진의, 그리고 후진의 종주국인 거란의 조공국이 되어야 하지만 당시의 고려-요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고려와 요의 교류는 10세기 전반 942년까지 925와 926년 고려의 사신 두 차례와,⁷²⁾ 922, 937, 939년 요의 사신 세 차례에 불과하다.⁷³⁾ 더욱이 942년에 거란의 사신 30명이 낙타 50마

66) 한족 사가의 역사기록은 그들의 굴욕적인 모습을 숨기고 있다. 오늘날 한족왕조의 ‘굴복’을 알 수 있는 것은 몽골제국시대에 편찬된 『遼史』와 『金史』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며, 만일 다른 한족왕조가 이 시대의 역사 편찬을 하였다면 정복왕조의 역사는 단독으로 편찬되지 않고 다만 『宋史』의 열전에 한족 중심적 시각으로 간단하게 서술되었으며 그들에게 불리한 기사는 모두 삭제 혹은 왜곡되었을 것이다.

67) 『高麗史』, 2:13b2-3.

68) 『高麗史』, 2:13b6-8.

69) 『舊五代史』, 75.985.

70) 『遼史』, 3.38-39.

71) 『遼史』, 4.55-56; Denis Twitchett and Klaus-Peter Tietze, “The Liao,” 70.

리의 선물을 가지고 왔을 때 고려 태조는 그들을 귀양 보내고 낙타는 수도 개경의 다리 아래에서 굶겨 죽이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⁷⁴⁾ 942년 이후에 다시 40여 년간 아무런 교류가 없었고, 이 시기를 통틀어서 요가 고려를 책봉한 기록은 단 한 차례도 없다. 결국 ‘천자’와 ‘황제’의 나라 後晉은 요의 ‘속국’이었지만 ‘국왕’의 나라 고려는 요가 책봉한 ‘조공국’이 아니었다. 고려는 실제 여진의 ‘蕃’을 거느린 천자국으로⁷⁵⁾ 고려의 ‘국왕’은 ‘천자’나 ‘황제’ 자칭하였고, ‘종주국’으로 자처한 송과 요 등은 고려가 내부적으로 稱帝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문제 삼지 못하였다.⁷⁶⁾

송과의 관계에서도 고려는 책봉에 그리 집착하지 않으며, 오히려 송이 먼저 제안한 책봉도 거절한다. 12세기 초 요나라를 치기위해 여진과 협상하면서 고려의 도움을 청하려고 한 송은 숙종에게 먼저 책봉을 제의하였지만 고려가 거절하였고,⁷⁷⁾ 1123년 요의 멸망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고려가 이미 요의 연호를 폐지한 상황에서 송이 고려의 인종에게 다시 책봉을 제시하지만 역시 거부당하였다.⁷⁸⁾ 송의 ‘화이론’적 생각에서는 아마도 ‘중국’으로부터의 책봉이야말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려가 송의 책봉제에 적극 호응하리라 기대하였는지 모르지만, 고려왕권의 정통성에 있어서는 외부의 책봉에 의한 ‘인정’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아직 조공체제의 용어에 집착하여 국제관계를 설정하곤 한다. 즉 ‘황제’가 ‘책봉’을 내리면 그것이 ‘위계적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며 고려나 하는 遼金宋의 ‘조공국’이었다는 단순한 논리를 제시하곤 한다. 하지만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황제’와 ‘국왕’의 칭호는 조공과 책봉관계와 반드시 일치하지도, 국제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도 않았다. 즉 그 ‘황제’라는 명칭이 의미하는 정치적 위상과 권력은 다양하였고, ‘황제’가 항상 ‘국왕’의 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 같은 예는 요와 금이 그들의 괴뢰국 통치자들에게 내린 ‘황제’의 작위에서도 볼 수 있다. 951년 後漢이 망하고 郭威가 後周를 세우자 太原에 근거지를 둔 劉崇은 따로 北漢을 세우는데, 후주가 북한을 공격하자 劉崇은 스스로 거란 황제의 ‘조카’(姪子)를 자칭하여 도움을 청하였고 거란은 지원병을 보내면서 劉崇을 ‘大漢神武皇帝’로 책봉하였고 969년에는 그의 후계자 劉繼元도 역시 ‘皇帝’로 책봉을 하였다.⁷⁹⁾ 그리고 12세기 초 금나라는 북송을 정복한 후 1127년 옛 송의 북쪽 영토에 괴뢰국을 세워 전 송의 관료 張邦昌을 ‘大楚皇帝’로 ‘책봉’하였고 1129년에는 같은 지역에 다시 劉豫를 ‘大齊皇帝’로 다시 책봉한다. 이 大齊는 1137년에 폐지되고 ‘황제’는 ‘蜀王’으로 降封되고 있으니,⁸⁰⁾ 결국 大漢, 大楚, 大齊는 모두 이름뿐인 ‘황제국’으로 그 실상은 고려와 夏의 ‘王國’만도 못하였던 것이다.

다원적 국제관계에서 조공체제 형식의 수용이 결코 ‘지배-종속’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음은 고

72) 『遼史』, 2:21-22. 이보다 앞서 915년(『遼史』, 1:10)과 918년(『遼史』, 1:12)에도 ‘고려’가 거란에 ‘來貢’한 기록이 보이는데 이 사절들은 일반적으로 궁예가 보낸 것으로 추정한다.

73) 『高麗史』, 1:16b2; 『遼史』, 3:41, 4:45.

74) 『高麗史』, 2:14a9-b1. 이정신은 고려가 삼국을 통일한 초기에는 물리적인 통합에 불과하여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 내부 주도권 장악을 위한 분쟁 등의 여러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태조는 거란과의 관계를 약화시켜 전쟁을 유발하려 하였다고 해석하였다(이정신, 「고려 태조의 건국이념의 형성과 국내외 정세」, 『한국사연구』, 118 (2002)).

75) 추명엽, 「고려전기 ‘번(蕃)’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현실』, 43(2002).

76) 노명호, 「고려시대의 다원적 천하관과 해동천자」, 『한국사연구』, 105(1999), 15.

77) 『高麗史』, 13:16a2-4.

78) 『高麗史』, 15:5b2-6a7.

79) “六月辛卯朔, 劉崇爲周所攻, 遣使稱姪, 乞援, 且求封冊. ... 冊爲大漢神武皇帝”(『遼史』, 5:66). 후에 969년에는 그 후계자 劉繼元도 요로부터 ‘皇帝’로 책봉을 받는다(二月甲寅 漢劉繼元嗣立, 遣使乞封冊. 辛酉, 遣韓知範冊爲皇帝(『遼史』, 7:87)).

80) 『大金弔伐錄』(中華書局, 2001), 434-36, 539-41.

려가 시행한 연호 시행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공체제에서 ‘종주국’의 연호시행은 소위 ‘속국’이 이행해야 의무였으며, ‘종주관계’의 단절은 종종 ‘종주국’의 연호를 폐지하는 것으로 표명되곤 하였다. 그러나 고려와 하는 종종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고,⁸¹⁾ 요금송의 연호를 시행한다고 해도 그 양상은 조공체제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고려 초기의 연호 시행 기록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 A. (963) 14년 겨울 12월 ... 송의 연호를 시행하였다(十四年 ... 冬十二月 行宋年號).⁸²⁾
- B. (994) 13년 봄 2월 ... 처음으로 거란의 統和 연호를 시행하였다(十三年 春二月 ... 始行契丹統和年號).⁸³⁾
- C. (1016) 7년 ... 이해에 다시 송의 大中祥符 연호를 시행하였다(七年 ... 是歲 復行宋大中祥符年號).⁸⁴⁾
- D. (1018) 9년 ... 겨울 10월...이 달에 송의 天禧 연호를 시행하였다(九年 ... 冬十月 ... 是月 行宋天禧年號).⁸⁵⁾
- E. (1022) 13년 여름 4월... 거란이 어사대부 상장군 蕭懷禮등을 보내 왕을 개부의 동삼사 수상서령 상주국 고려국왕 식음 1만호와 식실봉 1천호에 책봉하고 더불어 수레와 의복, 의물을 주었다. 이때부터 다시 거란[국]의 연호를 시행하였다(十三年 ..夏四月 契丹遣御史大夫上將軍 蕭懷禮等來 冊王開府儀同三司 守尙書令上柱國高麗國王 食邑一萬戶食實封一千戶 仍賜車服儀物 自是復行契丹年號).⁸⁶⁾
- F. (1031) 김행공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거란이 [고려가]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하정사를 정지하고 계속해서 [요나라] 성종의 太平 연호를 사용하였다(金行恭回報 契丹不從所奏 遂停賀正使 仍用聖宗太平年號).⁸⁷⁾
- G. (1038) 4년 ... 8월 을축 그믐날에 처음 거란의 연호 重熙를 시행하였다(四年 ... 八月 乙丑 朔 始行契丹重熙年號).⁸⁸⁾

고려는 光宗 14년(963)년에 송의 연호를 채택하지만(A), 성종 13년(994)년 거란과의 평화 협상 후에는 거란의 統和 연호로 바꾼다(B). 하지만 거란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1010년에 거란이 침략하자 고려는 송으로부터 군사적인 도움을 받아내기 위해 현종 7년(1016)년에 大中祥符(C), 현종 9년(1018)년에는 天禧(D)의 송 연호들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현종 13년(1022)년에 고려와 거란이 평화적인 타협을 이루고 현종을 책봉하자 고려는 다시 요의 연호를 시행한다(E). 하지만 1031년 거란이 억류된 高麗 사신을 돌려보내고 압록강에 설치한 부교를 철수하라는 고려의 요구를 거부하자 당시 요에서 시행하던 興宗(1031-55)의 景福(1031-32)과 그 다음해 시행한 重熙(1032-55) 연호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이미 죽은 전 황제 성종의 太平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F). 이는 국경과 외교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한 요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며, 요나라의 重熙 연호는 양국 간의 현안이 해결되는 정종 4년(1038)년 8월에 가서야 비로소 시행된다(G).

고려는 실제 天授,⁸⁹⁾ 光德,⁹⁰⁾ 峻豐⁹¹⁾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요와 송 두 나라의 연

81) 하의 연호는 Ruth Dunnell, *The Great State of White and High*, xvii-xix 를 참조.

82) 『高麗史』, 2:29a6.

83) 『高麗史』, 3:27a6-7.

84) 『高麗史』, 4:23a3-4.

85) 『高麗史』, 4:28b2.

86) 『高麗史』, 4:38a4.

87) 『高麗史』, 5: 22b5-6.

88) 『高麗史』, 6:15a6-7.

호를 동시에 병기하기도 하며,⁹²⁾ 때로는 모든 연호를 폐지하고 단순히 干支만을 적기도 하였다.⁹³⁾ 특히 1116년에 요의 연호를 폐지하면서 송의 연호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당시 상황에서 고려에게 요, 송, 금의 연호가 아무런 상징적인 의미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 요를 멸망시킨 금이 그들의 연호를 알려왔을 때에도 바로 수용하지 않고 고려국왕을 인정한 후에야 그 연호를 시행한다. 그리하여 금이 1141년 1월에 이미 皇統의 연호를 알려오지만 고려가 이를 채택한 것은 1년 반이 지난 1142년 7월로 이는 금이 인종을 정식으로 책봉한 1142년 5월 이후였다.⁹⁴⁾ 또 금의 崇慶(1212-1213) 연호도 마찬가지로 금이 고려의 강종을 정식으로 책봉(인정)한 후에야 시행하고 있다.⁹⁵⁾

몽골제국 이전 다원적 국제관계에서의 연호 시행에 대한 고려왕조의 인식은 『高麗史』의 다음 기록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처음에 우리나라는 비록 송(宋), 요(遼), 금(金)의 정삭(즉 연호)을 사용하였으나 역대 임금들의 시호는 모두 종(宗)으로 불렀다. 그러나 원을 섬긴 이래 그 명분(名分)을 더욱 엄격하게 하였다(初國家雖用宋遼金正朔 然歷代之諡 皆稱爲宗 及事元以來 名分益嚴).⁹⁶⁾

위의 고려 후기 기록은 다원적 국제관계에서 고려가 遼金宋의 연호를 시행한 것은 호혜적 원칙아래 상대방을 인정하는 상징하는 것으로, 몽골 원제국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一元的) 국제관계에서의 연호 시행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결국 고려왕국의 요·금·원의 연호를 단지 수동적 자세에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중주국’이 책봉을 통해 ‘조공국’에 상징적인 정통성을 부여한 것처럼 ‘조공국’도 연호의 시행을 통해 ‘중주국’의 정통성을 상징적으로 부정하는 모습은 이 시기 다원적 국제관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II. 결 론

10-13세기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관계는 세력균형, 실리주의, 호혜성의 원칙에서 운영되었다. 만주의 정복왕조-중원의 한족왕조-서북의 하와 동북의 고려는 중첩된 삼각의 세력균형을 이루었고 각국의 대외정책은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리를 추구하였다. 고려와 夏는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펴나갔고 결코 ‘중국왕조’ 송·요·금의 충성스런 제후국도 모범적 조공국도 아니었다. 형식과 용어에 집착한 조공체제 이론의 틀로는 동아시아 조약체제의 유동적이고 복잡한 다원적 국제관계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기대할 수 없다.

이 동아시아 조약체제는 13세기에 몽골이 이 지역을 모두 정복하면서 지정학적 세력균형과 동시에 무너

89) 『高麗史』, 1:8b2.

90) 『高麗史』, 2:26b8-9.

91) 『淸州龍頭寺鐵幢竿記』(許興植 編, 『韓國金石全文』(서울: 아세아문화사, 1984), 374-76; 『古彌縣西院鐘』, 『韓國金石全文』, 376-77.

92) 한 예로 1101년 송의 建中靖國과 요의 乾統 연호를 병기하고 있는 『王釋煦墓誌銘』을 들 수 있다 (김용선 편, 『高麗墓誌銘集成』(翰林大學校 出版部, 1993), 31-32).

93) 『高麗史』, 14:10b8-11a1. 이보다 앞서 1079년 고려가 국왕의 질병치료를 위해 일본에 의사파견을 요청한 칙문에서도 단지 ‘중주국’으로 자처한 요나 송, 그리고 일본의 연호도 보이지 않으며 단지 干支를 사용하고 있다(남기학, 『고려와 일본의 상호인식』, 『일본역사연구』 11(1999), 67-68 참조).

94) 『高麗史』, 17:5a4-5, 7a4-5, 8b8-9.

95) 『高麗史』, 21:30b5.

96) 『高麗史』, 33:37a1-4.

진다. 몽골의 동아시아 지배는 역사상 이례적인 것으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중관계’에서의 호혜주의 원칙은 무너진다.⁹⁷⁾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국가의 틀을 유지한 고려는 몽골의 판도에 편입되면서 기존의 자주적·적극적 대외정책을 펼 수 없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명목·형식적이었던 조공제도의 일원적 세계질서의 원칙을 현실화시킨 것은 중국 왕조가 아닌 몽골제국이었다. 즉 기존의 한족왕조가 ‘천하’의 중주국임을 자처하는데 그쳤다면, 몽골은 실제로 천하의 모든 나라를 정복·복속시키려하였고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대 제국을 세웠다. 한족왕조가 형식적인 ‘조공’의 표현에만 만족하였다면, 몽골은 모리스 로사비가 말했듯이 전통 한족왕조의 일원적 국제질서의 이론을 더 강력하게 실행하였다.⁹⁸⁾ 이러한 원대의 세계질서는 기존의 한족 중심적 조공체계의 연속이 아니라, 세계 정복의 천명을 받았다고 믿은 몽골인들의 세계관에 따라⁹⁹⁾ 구축한 새로운 국제질서였다.

조공체제의 이론에서는 북방민족의 정복왕조인 요와 금(그리고 후대의 원과 청), 그리고 한족왕조인 송(그리고 후대의 명)이 모두 ‘중국왕조’로 설정되기도 하는데 이는 현대적 ‘중화다민족국가’(中華多民族國家)의 현대적 개념을 그러한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일률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현재주의적(presentist) 발상과 상통한다. 즉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불투명하였던 민족과 영토의 경계에 현대 민족 국가가 만들어낸 경계로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조공체제의 중국적 세계질서’의 범위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그러한 국제질서가 언제나 존재하였다고 하는 ‘가정’을 ‘사실’로 인정하고 시작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 한족 중심적 ‘조공체제’를 형식과 실체를 혼동하여 독자적 문화와 역사를 가진 전근대 동아시아의 ‘민족’과 ‘국가’를 모두 전근대 ‘중국질서’와 나아가서는 ‘중국국가’의 범주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개념이 고정된 민족, 문화, 혹은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비슷한 성격의 지정학적 용어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공제도’의 형식적 틀에서 벗어나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요·금·송과 같은 ‘중국’왕조만이 아니라 고려와 하 등 ‘주변’국가의 역할과 관점도 포괄할 수 있는 다원적 국제관계의 시각에서의 신중한 학문적 주의와 연구를 요구한다.

Abstract

The Multistate System in Pre-Mongol East Asia

Peter Yun (Research Fellow, Koguryo Research Foundation)

Before the Mongol Yuan period, Northeast Asian interstate relations were governed by a treaty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mong a number of legitimate and equal regimes. While the

97) Peter Yun, "Rethinking the Tribute System: Korean States and Northeast Asian Interstate Relations, 600-1600."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98), 130-149.

98) Morris Rossabi, "Introduction,"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11.

99) Thomas Allsen, *Mongol Imperialism: The Policies of the Grand Qan Möngke in China, Russia, and the Islamic Land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42.

Manchurian conquest dynasties confronted the Chinese Song states, Korean Koryô and Tangut Xia states functioned as balancers in the Northeast Asian military balance of power. Each state asserted its own ethnocentric world-view in the Northeast Asian multistate system, and the diplomatic formalities of investitures and tributes were not signs of domination and submission, but of peace and accommodation. Chinese historians have employed the tribute system to reinforce their territorial and historiographical claims over non-Han ethnic groups. However, the official theory of interstate relations with the Chinese state at the center was nothing more than a myth perpetuated to justify the rule of Chinese rulers to their subjects. The Chinese attempt to impose contemporary political boundaries on the past is a case of blatant presentism that reads history backwards by applying today's social and political standards and conditions to the past. Today's boundaries of China are of recent creation, and the term *zhongguo* (Central Kingdom) must be taken as a subjective and geopolitical designation.

Key words: Tribute System, investiture, tribute, Koryô, Khitan Liao, Jurchen Jin, Mongol Yuan, Chinese Song, Tangut Xia, presentism.